

#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 갑 석 (Kim, Gab-seok) \*

(E-mail : kimgabseok@hanmail.net)

논문접수일 : 2008년 1월 15일

논문심사일 : 2009년 1월 19일

게재확정일 : 2009년 2월 21일

---

\* 최종학위: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현직: 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협회 이사장

#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 마련을 위한 토대를 제시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단일 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 경제, 사회, 문화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① 정책부문에 미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이 정치, 교육, 국제적 지위, 저출산 문제 해결, 이민정책, 의료문제 개선 등 한국사회의 정책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② 경제부문에 미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의 일자리, 가정경제, 관광산업, 근로환경 개선, 의식주 서비스 등 한국사회의 경제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③ 사회부문에 미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이 사회적 거리감, 가치관, 사회의 인식 변화, 언어, 종교, 고령사회 문제해결 등 한국사회의 사회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④ 문화부문에 미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이 결혼문화, 전통문화, 선거문화, 타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적 교류, 한류 등 한국사회의 문화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 주제어 ] 국제결혼,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사회는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자녀들도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여 미래 한국사회는 인구 구성과 집단이 다양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정을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2007년 8월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체류자(장, 단기, 미등록체류자 포함)가 100만 명을 넘어서 남한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는 2002년 3만4,710명에서 2007년 10만4,749명으로 5년 사이 3배가 늘었다. 그러나 혈통을 중요시 하는 한국이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문화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조혜영 외 2007, 3).

현재 한국사회에 외국인은 이미 중요한 사회구성원이 되어 있지만, 국제결혼으로 만들어지는 다문화, 다민족 현상은 한국사회에 또 다른 소외계층을 만들어 내고 있고, 외국인 아내들의 문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제, 농촌 총각들의 피해의식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와 맞물려 장래에 커다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이주 현상으로부터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고, 아내와 어머니라는 가족 내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두 나라의 시민 자격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자리를 잡고 있다(설동훈 2005, 22). 그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는 다문화 가정에 대

한 태도가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조사(황정미 외 2007, 113)에서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항목에 찬성 61.3%, ‘우리나라의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라는 항목에 찬성 55.3%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찬성하는 의견을 보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조사되었지만,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 문화가 더 풍부해진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40%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부정적 태도가 23.7%로 늘어났다. 또한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은 단지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들에게 차별대우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강신임 1999, 28).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이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점점 더 증가하지만 국가적 관심은 미흡한 상태이고, 이러한 차별에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이 대부분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어 더욱 악영향을 미친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는 외국인 여성뿐 아니라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다. 이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식과 정책이 그 증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다문화 사회의 진행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결혼이주자의 안정적 정착 문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과 같은 문제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방안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 마련을 위한 토대를 제시하기위해 무엇보다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고 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박정화(2008)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정치사

회화에 관하여 논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하였고, 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문화들을 보존하고 장려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장기적으로는 이들 문화의 조화와 공유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황범주(2008)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문화적 편견과 차별해소,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제도와 정책지원을 연구의 제언으로 나타내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둔다.

연구문제는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사회학적 특성’(① 성별, ② 나이, ③ 결혼여부, ④ 자녀, ⑤ 종교, ⑥ 학력, ⑦ 직업, ⑧ 수입)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① 외국인 이주에 대한 의견, ②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③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④ 단일 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⑤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⑥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정책부문, 경제부문, 사회부문, 문화부문)을 살펴본다.

연구문제 1 :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3. 용어정의

“다문화가정”이라면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이며(이영주 2006, 6), 또한 우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이주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그 밖에 외국인거주자, 외국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비차별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다(김범수 외 2007, 63). 정하성 외(2007, 45)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의 정의를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과, 단순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한 명이 국적을 취득해 구성된 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면서, 다문화 가정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첫째,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또는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처럼 국제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거나,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새터민 가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위의 모든 정의를 요약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통칭하는 말로 정의한다.

### 4. 연구의 범위 및 한계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이에 92문항 5점 리커트식 설문지를 통하여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한국사회에 미치는 다문화 가정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삼는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다문화와 다민족에 대한 이해, 한국의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고찰 할 것이며, 국

내의 국제결혼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 ‘연구방법’에서는 연구모형, 연구대상선정, 측정도구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자료를 처리 방법과 분석과정을 나타낼 것이다.

제4장 ‘연구결과’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연구목적의 토대로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변인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며 끝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함의’에서는 본 연구의 최종 결과자료를 요약하고 연구의 성과와 의의를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전국을 대상으로 한 달간에 무작위로 설문하여 753명만의 의견을 연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연구대상에 선정을 무작위 표집 하였지만 20대에 많이 치중하여 한계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인을 연구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이 범위를 정책, 경제, 사회, 문화부문으로 한정적으로 나누었으므로 한계가 있다.

## 5. 선행연구

2000년대 전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해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는 최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관하려고 한다.

황범주(2008)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정책을 인권보호, 사회통합 교육정책, 교육소의 방지 교육정책, 인적자원 개발 교육정책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

였다. 그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소의 방지를 위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교육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하고 그 원인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나타내었다. 즉, 교육적으로 소외된 개별 학생들에 대한 처방적 대책, 미취학자녀와 이주 여성 중심의 정책,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수자의 문화를 인정하는 정책, 소수자의 주류사회 편입 기회 확대, 다문화 가정 자녀의 문화·언어를 수용하는 정책,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거해야 하며 차이를 인정하는 공존의 삶을 지향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경자(2008)는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을 비교하고, 일반가정과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제를 연구하였는데, 다문화 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우울, 신체화, 가족관계, 사회관계 문제 등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교사와 학교환경에 대한 태도, 학업과 교우관계라는 측면에서 적응하는데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은 우울정도가 높고 자아탄력성이 낮아서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정지영(2008)은 초등담임 교사들이 교육 실행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교육적 갈등양상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초등담임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아동의 특성은 아동의 언어유형, 학업성취 수준, 교우관계 면에서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정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가 겪는 교육적 갈등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과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도적인 부담 가중과 지원 부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 아동을 담당하는 담임의 몫으로 인식되는 현재의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진숙(2008)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태

도를 밝히고,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인 교육정도, 연령, 직업, 국적, 입국연수, 결혼만족도, 자녀의 만족도, 의사소통수단, 자녀수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 만족도에서 ‘매우만족’인 집단보다 ‘보통’ 일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더 거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언어능력 하위요인인 ‘상식’과 ‘이해’와 낮은 상관이 있었고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언어능력 하위요인인 ‘이해’와 낮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낮은 상관이 있고,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인 ‘협조성’에서 낮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화(2008)는 한국의 다인종 사회 진입에 의한 사회현실을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국적취득, 시민권, 참정권의 정치적 권리 및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정체성과 국민통합, 그리고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문제 등에 관한 정치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첫째, 국적취득 기간요건이 충족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귀화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영주권 심사규정이 완화되어야 하며 한국 남성과 결혼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는 국적유무에 관계 없이 자립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장하였다. 둘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생활과 일정수준의 교육, 보건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공적권리인 시민권과 나아가 정치적 권리인 대표자를 선출하고 미래의 우리 사회에서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참정권 보장을 해야 한다고 한다. 셋째, 국민통합을 위하여 배타적 집단을 만들지 않도록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한국사회 구성원 양자의 노력 필요와 정부의 국민통합정책 또한 모든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기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함을 나타내 주고 있었다. 넷째,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우리사회에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해가고 있지만 이들은 어릴 때부터 외국인인 어머니로 인하여 가정에서 정체성 혼란과 언어능력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남들과 다른 생김새로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사회에서는 차별과 차가운 시선 때문에 학교 밖으로, 사회 밖으로 맴돌고 있거나 이를 등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사회의 인식변화 및 이들을 위한 정책마련과 교육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박지영(2008)은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해온 여성들의 인권침해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과 양상을 분석하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 실태를 반영하여 인권침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둘째, 국제결혼 중개업체와 비영리 단체인 종교단체의 중개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양상을 살펴보았다. 셋째, 국내에서 발표·시행중인 정부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지원대책」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법률의 보완과 인신매매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이행, 인신매매범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 여성의 임파워먼트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와 다문화주의

문화(culture)라는 말은 토양을 경작한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신의 소프트웨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구미권

언어에서는 ‘문명(Civilization)’ 또는 ‘정신의 세련화’를 뜻하고 교육, 예술, 문학 등을 의미한다(차재호 외 2001, 25). 또는 “그 사회에서 행해지는 이상, 가치관, 틀과 사용되는 종류, 인생 가치관 그리고 무의식이나 의식적으로 틀리지 않고 옳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같이 인정하고 나누는 것”(Eunsook Lee Zeilfelder 2007, 17)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런 문화는 인간이 문화를 배우고 습득할 능력을 지니고 태어나서 배우고 익혀가는 학습성, 문화는 끊이지 않고 전승되고 축적하여 전통을 만들고 관습을 만들어 나가는 축적성, 사회구성원 모두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통합된 전체를 구성하는 공유성,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규칙성과 새롭게 점차적으로 변화해 가는 변동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민족마다 다양한 성향을 지니고 있어 환경과 상황이 서로 유사하더라도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사고방식이 서로 다르다(정하성 외 2007, 16-23).

여기에서 ‘다문화’란 다의적 개념으로 객관적 사회 현상을 지칭하는 기술적(descriptive)개념으로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사회 구성을 목표로 하는 이념적 지향을 의미한다(김이선 외 2007, 22). 그러나 “다문화는 multi-cultural, inter-cultural, cross-cultural로 혼합하여 번역될 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그 개념의 이해와 논의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다문화란 성별, 종교, 직업, 계층, 인종 등에서 비롯되는 각 사회집단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정하성 외 2007, 42). 이렇게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상대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하는데, 문화의 다양성 시대에서는 자문화중심주의(민족중심주의)와 문화사대주의를 경계하고 상대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정하성 외 2007, 23). 특히 다문화 시대에 서로간의 불화가 생기는데, 다문화 사회에서 불화가 생기는 원인은 Henderson(1994: 163-165)에 의하면 첫째, 다른 언어, 둘째,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감정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의 차이, 셋째, 의미를 왜곡하는 문화의 고정관념. 넷째, 말

의 내용을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는 것, 다섯째, 의미를 왜곡하는 높은 수준의 불안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의 문화는 공유되어야 하며,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이런 다문화 상황 속에서 ‘다문화 주의(multiculturalism)’가 전개되고 있는데, 복수의 민족이나 문화, 가치 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인지가 필요하다(이순태 2007, 51-53). 그러나 그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다양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런 다문화주의의 유형을 살펴보면,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liberal multiculturalism)’, ‘조합주의적 다문화 주의(corporate multiculturalism)’, ‘급진적 다문화 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홍기원 2006, 17-18). 자유주의적 다문화 주의는 다문화주의를 소수인종과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기회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기회평등을 보장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면서도 소수인종 집단의 고유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지만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습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조합주의적 다문화 주의는 소수집단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법적 원조를 하고 다언어방송, 다언어의사소통, 다언어문서, 다언어 및 다문화 교육 등을 추진하여 평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자유주의적 다문화 주의와 급진적 다문화 주의의 절충적 형태이다. 급진적 다문화 주의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규범, 가치, 생활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유형이다.

이런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 사회에서의 접근은 위험을 초래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고립이나 분열시킬 수도 있어 고려해 보아야 할 위험한 요소가 많다. 개인이 하나의 문화에만 소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가지의 정체성을 부과하고, 그 집단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아 개인을 고립시켜 자신의 존재감을 잃게 될 수도 있고, 한 사회의 특수성에 위배되는 언어나 행동을 하게 되어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새로운 도덕

적인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소수집단을 위한 공적인 인정과 정책적인 지원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주의의 정책에 참여하려는 집단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소수집단 사이의 갈등도 존재하게 되며 다수집단에 속하지 못한 소수집단은 그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 존재하여 소수집단이 가진 사회적, 경제적 부조리와 불평등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김범수 외 2007, 77-79).

현재 한국에서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요구나, 다문화주의의 정책 수용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문화주의는 국가별, 상황별로 다양한 양상을 띠어온 고정된 이념은 아니지만 혈통적 순수성이 지배적인 단일민족에 대한 믿음이 강한 한국에서 다문화주의의는 국제사회에 맞춰가기 위한 필요한 장치이다.

## 2. 한국의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가정

한국은 1980년대 말부터 조선족의 입국을 기점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그 수는 현저히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산업현장을 지키는 인적자원이 되었다. 또한 3D업종의 산업현장은 외국인노동자 없이는 가동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으며 저 출산과 고령화는 노동력 및 인구감소로 이어지면서 국제결혼과 맞물려 지게 되었다(김범수 외 2007, 18). 국제결혼의 시초는 한국 전쟁 후 미군과 한국인 여성들과의 결혼에서 찾을 수 있다(최협 2005, 322). 그 당시의 결혼은 대부분 기지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춘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었으며, 자녀 역시 혼혈인으로서 차별과 배제를 당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국제결혼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었다(김범수 외 2007, 21). 그러나 1980년 중반 이후부터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유입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전체 결혼의 10%를 넘어서는 일반적인 결혼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김이선 외 2007, 16). 국제결혼을 하는 대부분의 농촌지역 한국남성들이 네 집 건너 한 집은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7-8년 후에는 초등학교에서 4명 중 1명은 다문화가정의 자녀일 것으로 추정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6).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고 있는 다문화사회는 그 진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으로의 급격한 이주 증가세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다문화 가정의 유형으로 권수진(2007, 6-7)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노동자가정, 이주노동자가정으로 나누었다. 박효섭(2006, 60-75)과 서혁(2007, 59-60)은 다문화 가정을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한국사회의 결혼이 혈연 중심적 기반을 두기 때문에 국제결혼은 오랫동안 환영받지 못하였으나,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국제결혼에 따른 가정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고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정서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만(임경혜 2004, 12) 다문화가정에 문제점들을 간과할 수 없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신혜정 2007, 8).

첫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유린 현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국내유입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고 이들 대부분이 남성혼자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부부가 평등관계보다는 주종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 국적을 획득하기까지 여성 결혼이민자는 2년 동안 체류비자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해야만 하므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셋째, 여성 결혼이민자는 정착과정에서 언어 및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부부갈등과 자녀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넷째, 한국사회의 편견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을 힘들게 한다.

다섯째, 국제결혼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 남성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절대빈곤문제가 크다. 마지막으로 이민 여성이 일자리를 위해 국제결혼으로 위장하여 들어오는 경우에는 가족 해체와 심리적 충격과 경제적 타격을 주게 된다.

이렇게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의 다문화 현상은 다른 문화와의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화와 문화 사이의 갈등, 차별이나 편견 등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들도 가져온다. 이러한 현상들을 개인을 넘어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 지구적 차원의 평화로운 삶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장신근 2007, 233).

### 3.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보다 그 배후에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그 요인들로는 ①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나라들 간의 불균등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② 가난과 실업이 만연한 송출국 사회와 자국인의 여성 송출을 장려 또는 방관하는 정부정책, ③ 신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여성을 충원하려는 유입국 사회와 그것을 묵인하는 정부정책, ④ 국제결혼을 성사시킴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등을 국제결혼 이주 증가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05, 21).

우리나라도 통계청(2008)의 혼인통계결과에 따르면, 2007년에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8,491건으로 2005년 이후 2년째 감소하고 있지만, 2000년의 12,319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은 29,140건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하였고,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9,351건으로 전년보다 1.4% 감소하였다<표 1>.

<표 1> 외국인과의 혼인(단위: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혼인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345,592
외국인과의 혼인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38,491
총 혼인건수 대비	3.7	4.8	5.2	8.4	11.4	13.6	11.9	11.1
증감률	1,749	2,915	679	9,745	9,789	7,674	-3,431	-1,199
증감률	16.5	23.7	4.5	61.2	38.2	21.6	-8.0	-3.0
■ 한국남자+외국여자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증감률	26.5	37.0	10.1	74.4	33.2	21.8	-3.1	-3.5
■ 한국여자+외국남자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9,351
증감률	4.6	4.2	-6.4	31.6	52.9	21.2	-20.6	-1.4

자료 : 통계청, 2008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을 보면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29,140건으로, 중국 14,526건(49.8%), 베트남 6,611건(22.7%), 캄보디아 1,804건(6.2%) 순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증가하던 베트남 여자와의 혼인이 2007년에는 전년보다 34.7% 감소하였으나, 캄보디아는 전년보다 357.9% 증가하였다. 한국 여자와 외국 남자의 혼인은 총 9,351건으로 전년보다 1.4% 감소하였는데, 외국 남자의 국적은 일본 3,684건(39.4%), 중국 2,489건(26.6%), 미국 1,344건(14.4%) 순으로 전체의 80.4% 차지하였다.

<표 2>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자와 혼인한 외국여자의 국적별 혼인건수

국적	2006					2007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기타	계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기타
건수	3,525	2,394	718	170	243	3,172	1,353	842	484	493

자료 : 통계청, 2008

2007년 지역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이 전체 혼인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특별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은 낮게 나타났고,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전체 혼인 중 13.9%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이었는데, 이 중 33.9%가 한국 남자의 직업이 농림어업종사자이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순이다<표 2>.

외국 여자와 한국 남자의 혼인건수는 도시지역(동부)이 19,762건으로 농촌지역(읍·면부)의 8,033건 보다 많이 나타났으나 외국 여자와의 혼인구성비는 농촌지역(13.5%)이 도시지역(7.3%) 보다 높게 나타났고, 농촌지역 혼인 남자 중 10.0%가 농림어업종사자이며, 그 중 44.5%가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다. 이는 혼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자 7,930명 중 40.0%에 해당하는 3,172명이 외국 여자와 혼인하였다<표 3>.

<표 3>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혼인(단위: 건, %)

연도		혼인건수 (A)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자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건수(B)	구성비 (B/A)	건수(C)	구성비 (C/A)	건수(D)	구성비 (D/C)
2006	계*	332,752	30,208	11.9	8,596	2.6	3,525	41.0
	동부	256,318	19,889	7.8	1,767	0.7	521	29.5
	읍면부	58,383	8,746	15.0	6,481	11.1	2,991	46.2
2007	계*	345,592	29,140	11.1	7,930	2.3	3,172	40.0
	동부	270,980	19,762	7.3	1,699	0.6	515	30.3
	읍면부	59,701	8,033	13.5	5,953	10.0	2,651	44.5

자료 : 통계청, 2008 \* 국외 및 미상 포함

이와 같이 이제는 한국에서도 국제결혼이 흔한 일이 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주현상이 농어촌을 중심으로 급증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은 한국의 결혼시장의 파행적 구조와 접합되어 만들어진 현상이 되었다. 일자리를 찾거나 경제적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한국으로의 결혼이주가 외국여성에서 경

제적 기회를 잡기 위한 가능한 선택으로 등장한 것이다(한건수 2006, 200). 따라서 이들에게 결혼은 부부간의 관계 형성에 앞서 가족과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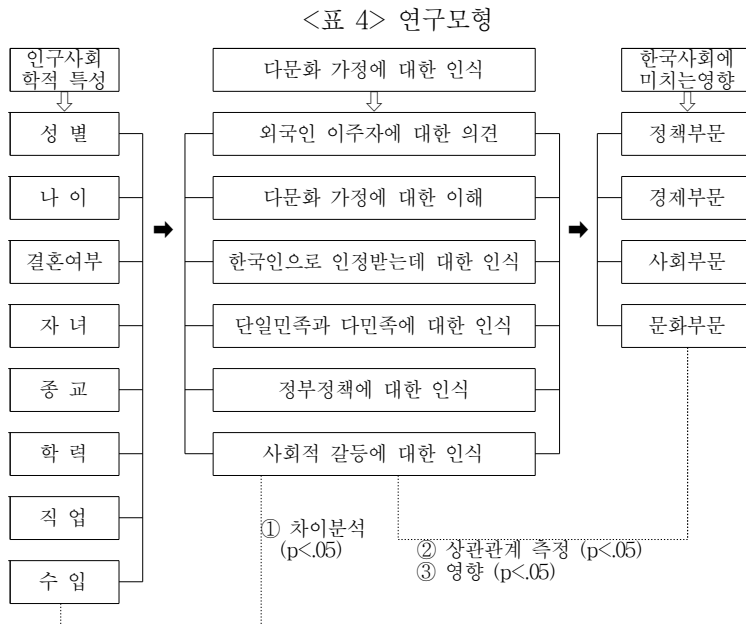
그 증가 요인을 볼 때 외국 노동자의 유입,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남녀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여성의 부족, 농촌총각 증가 등을 들 수 있는데, 최유진(2007, 9-10)은 그 주요한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남아선호사상으로 성 비례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둘째,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증가로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셋째,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여건으로 한국여성과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이 늘고 있는데 서 찾고 있다. 그리고 넷째, 한국 총각을 구제하는 이유로 결혼을 빙자한 외국인과의 인신매매 성 위장 결혼을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과 다섯째, 한국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정책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을 통한 이주를 생존과 꿈을 펴는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데서 그 요인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결혼 가정의 안정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결혼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의 편견, 문화적 차이와 언어문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고통은 물론 가정해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다양한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국적취득상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자리에서 정작 자신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박정화 2008, 10).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표 4> 연구모형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나이, 결혼여부, 자녀 수, 종교, 학력, 직업, 수입)’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정책, 경제, 사회, 문화 부문)’의 상관관계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한국사회에 정책, 경제, 사회, 문화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의 대상을 전국을 대상으로 한 달간 무작위로 753명(남성 419명, 여성 334명)을 표집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나이는 10대에서 60대까지 이리며, 10대가 5.7%, 20대가 59.1%, 30대가 17.55, 40대가 11.2%, 50대가 5.2%, 60대가 1.3%이다.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는 미혼이 70.9%, 이혼은 1.1%이다. 대상자들의 종교는 기독교가 34.4%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와 불교가 각각 15.1%, 이슬람교 1.1%, 무교가 33.5%, 기타 0.8%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학력은 대학교(전문대포함)졸업이 59.8%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30.8%, 중학교 2.7%, 초등학교 0.5%, 대학원 이상은 6.25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이 4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직과 기술직이 17.8%, 농업, 수산업, 축산업이 1.2%, 자영업이 3.6%, 판매, 서비스직이 4.4%, 기능, 숙련공이 1.5%, 일반 직업이 0.8%로 가장 적었으며, 경영, 관리직이 1.6%, 전문, 자유직이 4.4%, 전업주부 5.6% 무직이 2.0%, 아르바이트가 0.95, 기타가 8.65로 나타났다. 수입은 151만원~300만원이 16.3%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이하는 9.3%, 1001만 원 이상은 4.9%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 3. 측정도구와 신뢰도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문항은 92문항으로 5점 리커트식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단일 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정책, 경제, 사회, 문화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지의 신뢰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래 <표 5>와 같이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여 주었다.

<표 5> 측정도구의 신뢰도

요 인	문 항	Cronbach's $\alpha$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7	.749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10	.784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10	.868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4	.746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12	.736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	7	.750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정책부문	13	.902
	경제부문	8	.877
	사회부문	11	.891
	문화부문	10	.889

#### 4. 자료처리 방법

모든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분포는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성별, 나이, 결혼 여부, 자녀, 종교, 학력, 직업, 수입 에 따른 차이분석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차이

연구대상자의 성별, 나이, 결혼여부, 자녀, 종교, 학력, 직업, 수입에 따른 특성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해 차이분석을 하였다.

첫째, 성별(남녀)에 따른 차이분석을 살펴보면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둘째, 나이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셋째,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넷째, 자녀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다섯째, 종교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여섯째, 학력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일곱째, 직업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여덟째, 수입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결과적으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면, 먼저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이 성별, 나이, 결혼여부, 자녀, 종교, 학력에 따른 6가지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성별, 나이, 결혼여부, 자녀, 종교, 학력에 따라 다문화 가정 정책을 만들 때 반영해야 할 것,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 정부의 현재의 정책 등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이 나이, 종교, 직업, 수입에 따른 4가지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나이, 종교, 직업, 수입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이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는 의견, 다문화 가족 중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은 성별과 종교 2가지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성별과 종교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가 늘어날 것에 대한 의견, 이주자에 대한 인식, 이주자들의 생활여건에 대한 의견, 이주자로 인한 문화적 다양성의 관계에 대한 의견 등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넷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는 학력과 직업 2가지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력과 직업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개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경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날 것에 대한 의견 등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다섯째,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은 학력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력에 따라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이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여부에 따라, 한국어 사용여부에 따라, 한국 국적 취득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 2.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정책, 경제, 사회, 문화부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 계수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표 6> 정책부문에 미치는 영향 상관계수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 받는데 대한 인식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책 부문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Pearson상관계수	1	.582(**)	.056	-.003	.328(**)	.314(**)	.328(**)
	유의확률 (양쪽)		.000	.122	.935	.000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Pearson상관계수	.582(**)	1	.131(**)	.013	.360(**)	.327(**)	.390(**)
	유의확률 (양쪽)	.000		.000	.720	.000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Pearson상관계수	.056	.131(**)	1	.441(**)	.329(**)	.142(**)	.180(**)
	유의확률 (양쪽)	.122	.000		.000	.000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Pearson상관계수	-.003	.013	.441(**)	1	.203(**)	.092(*)	.055
	유의확률 (양쪽)	.935	.720	.000		.000	.011	.13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Pearson상관계수	.328(**)	.360(**)	.329(**)	.203(**)	1	.400(**)	.410(**)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Pearson상관계수	.314(**)	.327(**)	.142(**)	.092(*)	.400(**)	1	.54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11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정책 부문	Pearson상관계수	.328(**)	.390(**)	.180(**)	.055	.410(**)	.541(**)	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130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 p < .01 \* p < .05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정책부문에 ① 외국인이주자에 대한 의견의 상관 정도가 0.328(p<.01), ②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가 0.390(p<.01), ③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이 0.180(p<.01), ④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이 0.1410(p<.01), ⑤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과의 상관정도가 0.541(p<.01)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변인은 상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상관계수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부문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Pearson상관계수	1	.582(**)	.056	-.003	.328(**)	.314(**)	.337(**)
	유의확률 (양쪽)		.000	.122	.935	.000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Pearson상관계수	.582(**)	1	.131(**)	.013	.360(**)	.327(**)	.350(**)
	유의확률 (양쪽)	.000		.000	.720	.000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Pearson상관계수	.056	.131(**)	1	.441(**)	.329(**)	.142(**)	.127(**)
	유의확률 (양쪽)	.122	.000		.000	.000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Pearson상관계수	-.003	.013	.441(**)	1	.203(**)	.092(*)	.095(**)
	유의확률 (양쪽)	.935	.720	.000		.000	.011	.009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Pearson상관계수	.328(**)	.360(**)	.329(**)	.203(**)	1	.400(**)	.375(**)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Pearson상관계수	.314(**)	.327(**)	.142(**)	.092(*)	.400(**)	1	.427(**)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11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부문	Pearson상관계수	.337(**)	.350(**)	.127(**)	.095(**)	.375(**)	.427(**)	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9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 p < .01 \* p < .05

둘째, <표 7>에 나타났듯이,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경제부문과 ①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의 상관 정도가 0.337(p<.01), ②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가 0.350(p<.01), ③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이 0.127(p<.01), ④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이 0.095(p<.01), ⑤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과의 상관

정도는 0.375(p<.01), ⑥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과의 상관 정도가 0.427(p<.01)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변인은 상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사회부문에 미치는 영향 상관계수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부문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Pearson상관계수	1	.582(**)	.056	-.003	.328(**)	.314(**)	.292(**)
	유의확률 (양쪽)		.000	.122	.935	.000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Pearson상관계수	.582(**)	1	.131(**)	.013	.360(**)	.327(**)	.352(**)
	유의확률 (양쪽)	.000		.000	.720	.000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Pearson상관계수	.056	.131(**)	1	.441(**)	.329(**)	.142(**)	.213(**)
	유의확률 (양쪽)	.122	.000		.000	.000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Pearson상관계수	-.003	.013	.441(**)	1	.203(**)	.092(*)	.066
	유의확률 (양쪽)	.935	.720	.000		.000	.011	.07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Pearson상관계수	.328(**)	.360(**)	.329(**)	.203(**)	1	.400(**)	.378(**)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Pearson상관계수	.314(**)	.327(**)	.142(**)	.092(*)	.400(**)	1	.44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11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부문	Pearson상관계수	.292(**)	.352(**)	.213(**)	.066	.378(**)	.441(**)	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70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 p< .01 \* p< .05

셋째, <표 8>에 나타나고 있듯이,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사회부문과 ①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의 상관 정도가 0.292(p<.01), ②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가 0.352(p<.01), ③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이 0.213(p<.01), ④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과의 상관 정도는 0.378(p<.01), ⑤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과의 상관 정도가 0.441(p<.01)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변인은 상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문화부문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수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문화부문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Pearson상관계수	1	.582(**)	.056	-.003	.328(**)	.314(**)	.283(**)
	유의확률 (양쪽)		.000	.122	.935	.000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Pearson상관계수	.582(**)	1	.131(**)	.013	.360(**)	.327(**)	.347(**)
	유의확률 (양쪽)	.000		.000	.720	.000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Pearson상관계수	.056	.131(**)	1	.441(**)	.329(**)	.142(**)	.168(**)
	유의확률 (양쪽)	.122	.000		.000	.000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단일민족과다민 족에 대한 인식	Pearson상관계수	-.003	.013	.441(**)	1	.203(**)	.092(*)	.060
	유의확률 (양쪽)	.935	.720	.000		.000	.011	.101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Pearson상관계수	.328(**)	.360(**)	.329(**)	.203(**)	1	.400(**)	.342(**)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Pearson상관계수	.314(**)	.327(**)	.142(**)	.092(*)	.400(**)	1	.430(**)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11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문화부문	Pearson상관계수	.283(**)	.347(**)	.168(**)	.060	.342(**)	.430(**)	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101	.000	.000	
	N	753	753	753	753	753	753	753

\*\* p < .01 \* p < .05

넷째, <표 9>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문화부문과 ①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의 상관 정도가 0.283(p<.01), ②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가 0.347(p<.01), ③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이 0.168(p<.01), ④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과의 상관 정도는 0.342(p<.01), ⑤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과의 상관 정도가 0.430(p<.01)으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변인은 상관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정책, 경제, 사회, 문화부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첫째, 정책부문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과 상관성이 있으며, 둘째, 경제부문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과 상관성이 있었다. 셋째, 사회부문에서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과 상관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화부문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과 상관성이 있었다.

### 3.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이고, 종속변인은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정책, 경제, 사회, 문화부문으로 각각 적용하였다.

정책부문에 미치는 영향<표 10>에 대한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0.373인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그리고 회귀분석결과 정책부문에 미치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영향의 정도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는 0.163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은 0.161,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은 0.403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 가정이 정치, 교육, 국제적 지위, 저

출산 문제 해결, 이민정책, 의료문제 개선 등 한국사회의 정책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0> 정책부문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F	R 제곱
	B	표준 오차				공차 한계	VIF		
(상수)	.464	.157		2.960	.003			74.109 0.000	0.373
외국인이주자에 대한 의견	.051	.037	.050	1.374	.170	.632	1.583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180	.041	.163	4.411	.000 ***	.616	1.624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059	.030	.066	1.957	.051	.741	1.350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042	.030	-.046	-1.404	.161	.796	1.257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202	.043	.161	4.651	.000 ***	.700	1.429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418	.034	.403	12.356	.000 ***	.790	1.266		

\* p<.05, \*\* p<.01, \*\*\*p<.001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표 11>에 대한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0.271인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경제부문에 미치는 것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p<.05). 영향의 정도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은 0.118이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는 0.129,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은 0.175,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은 0.2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 가정이 한국의 일자리, 가정경제, 관광산업, 근로환경 개선, 의식주 서비스 등 한국사회의 경

제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1> 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통계량		F	R 제곱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453	.188		2.415	.016			46.183 .000	0.271
외국인이주자에 대한 의견	.134	.045	.118	2.995	.003 **	.632	1.583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158	.049	.129	3.247	.001 **	.616	1.624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009	.036	-.010	-.264	.792	.741	1.350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038	.036	.037	1.067	.286	.796	1.257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244	.052	.175	4.693	.000 ***	.700	1.429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317	.040	.276	7.835	.000 ***	.790	1.266		

\* p<.05, \*\* p<.01, \*\*\*p<.001

사회부문에 미치는 영향<표 12>에 대한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0.282인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사회부문에 미치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p<.05). 영향의 정도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는 0.153이고,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은 0.116,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은 0.158,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은 0.3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 가정이 사회적 거리감, 가치관, 사회의 인식 변화, 언어, 종교, 고려사회 문제 해결 등 한국사회의 사회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2> 사회부문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F	R 제곱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559	.181		3.089	.002			48.895 0.000	.282
외국인이주자에 대한 의견	.055	.043	.050	1.269	.205	.632	1.583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182	.047	.153	3.872	.000 ***	.616	1.624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112	.035	.116	3.213	.001 **	.741	1.350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046	.035	-.046	-1.336	.182	.796	1.257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214	.050	.158	4.256	.000 ***	.700	1.429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336	.039	.301	8.616	.000 ***	.790	1.266		

\* p<.05, \*\* p<.01, \*\*\*p<.001

문화부문에 미치는 영향<표13>에 대한 회귀분석의 설명력은 0.255인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문화부문에 미치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p<.05). 영향의 정도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는 0.167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은 0.128,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은 0.3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인식이 다문화 가정이 결혼문화, 전통문화, 선거문화, 타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적 교류, 한류 등 한국사회의 문화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3> 문화부문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량		F	R 제곱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한계	VIF		
(상수)	.694	.190		3.649	.000			42.555 0.000	.255
외국인이주자에 대한 의견	.050	.045	.044	1.097	.273	.632	1.583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205	.049	.167	4.159	.000 ***	.616	1.624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070	.036	.070	1.919	.055	.741	1.350		
다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028	.036	-.027	-.768	.443	.796	1.257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179	.053	.128	3.391	.001 **	.700	1.429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350	.041	.303	8.532	.000 ***	.790	1.266		

\* p<.05, \*\* p<.01, \*\*\*p<.001

## V. 결론 및 함의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다인종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학교, 이웃,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도 같이 살아가야 할 이웃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적이나 출생지만으로 한국인이나 아니냐를 가리는 건 무의미하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폐쇄적 민족주에 따른 사회적 준비와 다문화 사회의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이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은 부족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하위요인을 정책부문, 경제부문, 사회부문, 문화부분으로 나누었고 독립변인으로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이 성별, 나이, 결혼여부, 자녀, 종교, 학력에 따라 다문화 가정 정책을 만들 때 반영해야 할 것,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 정부의 현재의 정책 등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은 나이, 종교, 직업, 수입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이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는 의견, 다문화 가족 중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은 성별과 종교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가 늘어날 것에 대한 의견, 이주자에 대한 인상, 이주자들의 생활여건에 대한 의견, 이주자로 인한 문화적 다양성의 관계에 대한 의견 등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는 학력과 직업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개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경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날 것에 대한 의견 등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은 학력에 따라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이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여부에 따라, 한국어 사용여부에 따라, 한국 국적 취득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정책, 경제, 사회, 문화부문)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 계수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①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정책부문과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p<.05$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p<.05$ ),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p<.05$ ),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p<.05$ ),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p<.05$ )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경제부문과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p<.05$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p<.05$ ),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p<.05$ ), 단일민족과 다민족에 대한 인식( $p<.05$ ),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p<.05$ ),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p<.05$ )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사회부문과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p<.05$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p<.05$ ),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p<.05$ ),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p<.05$ ),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p<.05$ )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문화부문과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의 상관 정도( $p<.05$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p<.05$ ),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p<.05$ ),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2( $p<.05$ ),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 $p<.05$ )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①정책부문에 미치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인 것으로( $p<.05$ ) 다문화 가정이 정치, 교육, 국제적 지위, 저출산 문제 해결, 이민정책, 의료문제 개선 등 한국사회의 정책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② 경제부문에 미치는 것은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의견,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인 것으로( $p<.05$ ) 다문화 가정이 한국의 일자리, 가정경제, 관광산업, 근로환경 개선, 의식주 서비스 등 한국사회의 경제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③ 사회부문에 미치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한국인으로 인정받는데 대한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인 것으로( $p<.05$ ), 다문화 가정이 사회

적 거리감, 가치관, 사회의 인식 변화, 언어, 종교, 고려사회 문제해결 등 한국사회의 사회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④ 문화부문에 미치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견인 것으로( $p < .05$ ), 다문화 가정이 결혼문화, 전통문화, 선거문화, 타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적 교류, 한류 등 한국사회의 문화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차후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책 부문, 경제부문, 사회부문, 문화부문에 따라 나누었으므로 정부나 각 지자체 등이 다문화 가정에 관련된 정책을 시행할 때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넷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을 위한 이론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신임, 1999,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교육의 과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
- 교육과학기술부, 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교육과학기술부.
- 권수진, 2007,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생성이름대기 특성비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자, 2008, “문화 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범수·서은주·손병돈·정재훈·조석연·최현미·신승연·최승희, 2007, 『다문화사회복지론』, 경기도: 양서원.
- 김이선·황정미·이진영, 2007,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구축( 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박정화, 2008, “한국의 다인종 사회 진입에 따른 정치적 함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효섭, 2006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본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가능성: 아시아 공동체 학교를 중심으로”, 「제 7차 국제이해 교육 학술대회 자료집」 .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서혁, 2007,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 교육 지원방안”, 「인간 연구」, 서울 : 가톨릭대학교 인간연구소, 제 12호.
- 설동훈,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 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순태, 2007,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영주, 2006,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경혜, 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진숙, 2008,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숙 리 자엘펠더(Eunsook Lee Zeilfelder), 2007, 『한국사회와 다문화 가족』, 양서원.
- 장신근, 2007, “평화교육으로서의 다문화 기독교교육: 공교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평화와기독교 교육』, 장로회신학대학교.
- 정지영, 2008,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아동의 특성 및 교사의 교육적 갈등연구”, 창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하성·유진이·이장현, 2007, 『다문화 청소년 이해론』, 경기도, 양서원.
- 조혜영·이창호·권순희·서덕희·이은하, 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유진, 2007,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접근”,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협, 2005,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아카데미.
- 통계청, 2007, 『혼인통계결과』, 통계청.
- 한건수, 2006, “농촌지역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 갈등 및 적

- 응”, 『한국문화인류학회연구보고』 . 39-1.
- 황범주, 2008,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분석”,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홉스테드 (Geert Hofstede), 2001, 『세계의 문화와 조직』, 차재호, 나은역 역, 학지사.
- 홍기원, 2006,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 Henderson, George, 1994, Cultural Diversity in the Workplace. Issues and strategies. Praeger Publishers.

#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n Society

Kim, Gab-seok  
(Korea Culture Education Association)

## Abstract

Recently, the incidence of international marriage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As multi-cultural families are also increasing and will continue to do so, Korea society has to prepare actively for a multi-cultural society from an ational point of view.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various factors via which the multi-cultural family influences Korea society, in order to prepare the correct policies.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effect of these factor son Korea society:' the view of foreign immigrant's,' understanding the multi-cultural family','perceptions about taking recognition to be a Korean','view of homo geneous nation and a multinational nation','opinions about social conflicts', and 'perceptions about government policie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category in the influence of the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n society was affected by 'understanding the multi-cultural family', 'opinions about social conflicts', and 'perceptions about government policies'(p<.05). Second, the economical category was affected by 'views of foreign immigrants', 'understanding the multi-cultural family', 'opinions about social conflicts', and 'perceptions about government policies'(p<.05). Third, the social category was

affected by 'understanding the multi-cultural family', 'perceptions about taking recognition to be a Korean', 'opinions about social conflicts', and 'perceptions about government policies'(p<.05). Fourth, the cultural category was affected by 'understanding the multi-cultural family', 'opinions about social conflicts', and 'perceptions about government policies'(p<.05).

**Key words: International Marriage, Multi-Cultural Family, Multi-Society.**